

2018년 서울시 7급 정답&해설

* 딱딱새: ‘딱따구리’의 방언(함북)

7. 정답 ③

해설 ㄴ. 국화[구과]: 음운의 축약이 일어나서 음운의 수가 1개 줄어 든다.
ㄷ. 솔잎[솔입](음절의 끝소리 규칙) → [솔닙](‘ㄴ’ 첨가) → [솔립](유음화): ‘ㄴ’ 음이 첨가되어 음운의 수가 1개 늘어난다.

8. 정답 ①

해설 행정 구역 단위의 로마자 표기법에 관한 문제이다. ‘도, 시, 군, 구, 읍, 면, 리, 동’의 행정 구역 단위와 ‘가’는 각각 ‘do, si, gun, gu, eup, myeon, ri, dong, ga’로 적고, 그 앞에는 붙임표(-)를 넣는다. 붙임표 앞뒤에서 일어나는 음운 변화는 표기에 반영하지 않는다. ‘신리’의 ‘리’와 같은 행정 구역 단위는 ‘ri’로 적으므로 ‘Sin-ri’로 적는 것이 바른 표기이다.

9. 정답 ③

해설 “저 사람은 무더위 때문에~내가 저 사람을 떼민 것도 아닌데……”로 보아 화자는 노인이 쓰러진 것이 자신의 탓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다. 그러나 그 노인이 지금쯤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서나 스스로의 힘으로 털고 일어났을 것이라고 자신을 위안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화자는 그를 위한 조치를 하지 못하고 버스를 탔던 것에 대해 괴로워하고 있다. 따라서 자기 탓은 아니지만 죄책감으로 괴로워한다는 ③이 화자의 심리 상태로 가장 적절하다.

10. 정답 ②

해설 제시된 작품은 충당사의 〈안민가(安民歌)〉로 소박한 비유를 통해 치국안민(治國安民)의 도(道)와 이상을 읊은 유교적 성격의 10구체 향가이다. ①·③·④는 모두 10구체 향가로 이 시가와 형식이 같지만, ② 처용의 〈처용가〉는 8구체 향가라는 점에서 다르다.

11. 정답 ④

해설 ㄱ. 중세 국어 표기법의 종성 표기법은 원칙적으로 표음적 표기법을 보여 주고 있는데, 이는 종성에 ‘ㄱ, ㆁ, ㄷ, ㄴ, ㅂ, ㅅ, ㄹ’의 8자만을 허용한다는 규정이다. 이는 《훈민정음해례》에서 규정한 ‘팔종성가족용법(八終聲可足用法)’을 반영한 것이다.
ㄴ. 훈민정음은 음(절)을 초성과 중성, 종성으로 분석하고, 초성과 중성을 구분하여 각각의 문자를 별도로 만들었다. 그러나 《훈민정음해례》〈예의〉부분에 종성 제자를 따로 만들지 않고 ‘종성부용초성(終聲復用初聲)’이라 하여 종성은 초성을 다시 사용한다고 하였다.
ㄷ. 순음 아래 ‘ㅇ’을 이어서 순경음을 만드는 문자 운용법인 ‘이어쓰기[연서법(連書法)]에 관한 설명이다.

오답 풀이 ㄴ. 사잇소리 표기법은 고유어에서의 ‘ㅅ, ㅈ, ㅊ’이나, 한자어 아래에 서의 ‘ㄱ, ㄷ, ㅂ, ㅍ, ㅈ, ㅊ, ㅌ’ 등 복잡한 방법이 있었으나 ‘ㅌ’은 〈용비어천가〉에서만 사용되었고, ‘ㄱ, ㄷ, ㅂ, ㅍ, ㅅ, ㅈ, ㅊ, ㅌ’ 등의 사잇소리는 성종 이후 ‘ㅅ’으로 통일되어 간소화되었다.
ㄷ. ‘동국정운식 한자음’이란 조선 최초의 韻書인 《동국정운(東國正韻)》에 정리해 놓은 한자음으로, 세종 당시의 현실음과 중국의 원음과 최대한 가깝게 발음하여 한 인위적이며 이상적인 한자음을 말한다. 한자어 표기법은 대체로 한자를 크게 쓰고 각 글자마다 작은 크기의 동국정음식 한자음을 붙이는 것이 보편적이었지만 《월인천강지곡》의 경우, 한글로 한자음을 크게 쓰고 작은 크기의 한자를 붙이는 방식이 사용되었고, 《용비어천가》와 《두시언해》 등에서는 아예 해당 한자어에 한글로 음을 달지 않기도 했다.

1. 정답 ①

해설 동화의 방향에 따른 순행 동화와 역행 동화를 구별하는 문제이다. 동화 규칙은 한 음운이 인접하는 다른 음운의 성질을 닮아 가는 음운 현상이다. 동화의 방향에 따라 뒤의 음이 앞의 음의 영향을 받아 그와 비슷하거나 같게 소리 나는 현상인 순행 동화와 어떤 음운이 뒤에 오는 음운의 영향을 받아서 그와 비슷하거나 같게 소리 나는 역행 동화로 나눌 수 있다. ① ‘손난로[손날로]’는 ‘난’의 받침 ‘ㄴ’이 ‘ㄹ’의 앞에서 ‘ㄹ’로 변하는 역행 동화 현상(유음화)이 일어나지만, 나머지 ②·③·④는 모두 순행 동화가 일어난다.

2. 정답 ①

해설 간접 높임에 관한 문제이다. ‘간접 높임’은 높임 대상인 주체의 신체, 소유물 등에 ‘-시-’를 붙임으로써 표현된다. ‘파님’을 썼다는 것은 높여야 할 대상의 딸을 통해 그 대상을 높이겠다는 뜻을 지니고 있는 것이므로 간접 높임법을 쓰는 것이 적절하다. ‘있다, 없다’의 경우, 직접 높임은 ‘계시다, 안 계시다’를, 간접 높임은 ‘있으시다, 없으시다’를 쓴다. 따라서 ‘부장님의 파님은 집에 있으신가요?’ 정도로 고치는 것이 적절하다.

3. 정답 ④

해설 다의 관계란 소리로 같고 의미도 서로 밀접한 관련이 있는 단어를 말한다. ‘쓰다’의 용례 중 ㄴ은 ‘어떤 말이나 언어를 사용하다’의 의미이고, ㄴ은 ‘어떤 일을 하는 데 시간이나 돈을 들이다’의 의미로 서로 의미가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있다. 나머지는 소리는 같지만 의미적으로는 관련이 없는 동음이의어 관계에 있는 단어들이다.

4. 정답 ③

해설 김종삼의 〈민간인〉은 월남 체험을 제재로 하여 평범한 사람들이 겪었던 민족 분단의 비극을 드러낸 작품이다. “울음을 터뜨린 한 영아를 삼킨 곳”은 삼엄한 경계 속에서 월남을 감행했던 사람들이 느닷없이 터진 아이의 울음 소리에 당황해서, 그 아이를 집어넣어 죽음에 이르게 할 수밖에 없었던 “황해도 해주의 바다”를 의미한다. 따라서 아이의 목숨을 앗은 것은 군인이 아니라 바다이다.

5. 정답 ④

해설 글에 대한 독자의 잘못된 이해를 가려내는 문제이다. 글쓴이는 소비의 위기를 민주주의의 위기와 연결시키고 있다. 즉 민주주의 사회가 계속 유지되기 바란다면 소비를 멈춰서는 안 된다고 진술한 뒤, 대량 소비가 점점 줄어들거나 하면 사회는 완전히 다른 구조로 넘어갈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따라서 대량 소비가 민주주의의 근간을 무너뜨린다는 ④의 이해는 적절하지 않다.

6. 정답 ③

해설 제시된 단어는 모두 합성 명사이다. ‘살짝곰보’는 부사 ‘살짝’가 명사 ‘곰보’를 직접 꾸미는 구성 방식이다. 이와 같은 구성 방식을 갖는 것은 ‘딱딱새’로, 부사 ‘딱딱’이 명사 ‘새’를 직접 꾸미는 경우이다.

* 살짝곰보: 약간 엷은 얼굴. 또는 그 얼굴을 가진 사람.

12. 정답 ①

해설 (가)는 ‘임을 만류함-임이 죽음-임의 죽음에 대해 한탄하고 체념함’으로 시상이 전개된다. (나)는 ‘누이의 죽음에 대해 슬퍼함-누이의 죽음을 종교적으로 승화함’으로 시상이 전개된다. 즉 (가)와 (나) 모두 시간의 흐름에 따라 시상이 전개되므로 ①이 정답이다.

13. 정답 ②

해설 ‘과정’이 ‘일이 되어 가는 경로’를 뜻할 때에는 ‘過程(지날 과, 한도 정)’으로 쓴다.
· ‘중국의 옛 풍습의 하나’인 ‘전족’은 ‘纏足(엮을 전, 발 족)’으로 쓴다. 여자의 엄지발가락 이외의 발가락들을 어릴 때부터 발바닥 방향으로 접어 넣듯 힘껏 묶어 형겅으로 동여매어 자라지 못하게 한 일이나 그런 발을 이르는 말이다.
· ‘사실과 다르게 해석하거나 그릇되게 함’을 의미하는 ‘왜곡’은 ‘歪曲(비똥 왜, 굽을 곡)’으로 쓴다.
· ‘나무나 풀 따위가 말라 죽음’을 이르는 ‘고사’는 ‘枯死(마를 고, 죽을 사)’로 쓴다.

14. 정답 ②

해설 ‘두름’은 ‘조기 따위의 물고기를 짚으로 한 줄에 열 마리씩 두 줄로 엮은 것 / 고사리 따위의 산나물을 열 모숨 정도로 엮은 것’을 뜻한다.

15. 정답 ③

해설 연결 어미 ‘-거든’은 ‘어떤 일이 사실이면’, ‘어떤 일이 사실로 실현되면’의 뜻을 나타내는 연결 어미 또는 앞 절의 사실과 뒤 절의 사실을 비교하여, 앞 절의 사실이 이러하니 뒤 절의 사실은 더욱 당연히 어떠하다는 뜻을 나타내는 연결 어미로 쓰인다. ‘-거든’이 ‘어떤 일이 사실이면’, ‘어떤 일이 사실로 실현되면’의 뜻을 나타내는 연결 어미로 쓰였을 때, ‘혹시 길이 미끄럽거든 지하철을 이용해라.’와 같은 문장에서 명령의 뜻을 나타내는 종결 어미 ‘-어라’와 같이 쓰인다. 따라서 명령문이 오면 어색하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거든’이 앞 절의 사실과 뒤 절의 사실을 비교하여, 앞 절의 사실이 이러하니 뒤 절의 사실은 더욱 당연히 어떠하다는 뜻을 나타내는 연결 어미로 쓰일 경우에는 흔히 뒤에는 의문 형식이 온다. ㉠ 까마귀도 어미의 은혜를 알거든, 하물며 사람이 부모의 은혜를 모르겠느냐?

오답 풀이 ① ‘-(으)려고’는 ‘어떤 행동을 할 의도나 욕망을 가지고 있음을 나타내는 연결 어미 / 곧 일어날 움직임이나 상태의 변화를 나타내는 연결 어미’로 쓰인다. 어떤 행동을 할 의도나 욕망을 가지고 있음을 나타내는 경우, 앞 문장과 뒤 문장의 주어는 같아야 한다.
㉡ •영수가 시합에서 이기려고 어머니가 날마다 열심히 연습해요. (×)
•영수가 시합에서 이기려고 날마다 열심히 연습해요. (○)
② ‘-더라도’, ‘-(으)ㄹ망정’ 등의 연결 어미가 결합된 문장은 ‘-었/았’과는 결합할 수 있지만, ‘-겠-’과는 결합할 수 없다.
㉢ •철수가 떠났더라도 영희는 미워하지 않을 것이다. (○)
•철수가 떠나겠더라도 영희는 미워하지 않을 것이다. (×)
④ ‘-(으)ㄴ들’은 ‘-ㄴ다고 할지라도’의 뜻을 나타내는 연결 어미이다. 어떤 조건을 양보하여 인정한다고 하여도 그 결과로서 기대되는 내용이 부정됨을 나타낸다. 따라서 뒤 문장에는 강한 추측 표현이나 단정·강조하기 위한 의문문의 형식이 주로 온다. 예를 들어 ‘물이 맑은들 낚시에 무슨 도움이 될까?’라는 문장에서 후행절의 의문문은 이미 기대되는 내용이 부정됨을 나타내므로 굳이 대답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면서 서술이나 명령의 효과를 나타내는 수사 의문문의 형태로 나타난다.

16. 정답 ②

해설 <보기>는 허균의 <누실명(陋室銘)>이다. 다른 사람들은 누추한 방이라고 하지만 글쓴이에게는 ‘신선이 사는 곳’이고 ‘마음 안온하고 몸 편안’한 누추하지 않은 곳이라고 말하고 있다. 따라서 글쓴이가 보이는 삶의 태도로 적절하지 않는 것은 ‘몹시 힘들고 어려우며 고생스러움’을 이르는 말인 ‘艱難辛苦(어려울 갠, 어려울 난, 매울 신, 쓸 고)’이다.

17. 정답 ②

해설 제시문을 통해 사실을 판단한 내용 중 잘못된 것을 찾는 문제이다. “안성에서 간행된 것도 있으나 그 대부분은 경판을 안성에서 찍어낸 것이다”라는 진술이 나온다. 이것은 안성에서 간행된 소설책 대부분이, 판각본은 서울에서 제작했지만 안성에서 찍어 판매한 한 경우였다는 의미이다. 따라서 방각본 소설책은 제작된 지역에서만이 아니라 다른 곳에서 유통되기도 했으므로 ②가 적절하지 않다.
*간행되다(刊行--): 책 따위가 인쇄·발행되어 나오다.
*경판(京板): 서울에서 판각함. 또는 그 판각본
*판각(板刻): 나뭇조각에 그림이나 글씨를 새김.

18. 정답 ④

해설 올V듯도V하다(○): 보조 용언은 띄어 씀을 원칙으로 하되, 경우에 따라 붙여 씀도 허용한다. 다만 ‘올V듯도V하다’와 같이 중간에 조사가 들어갈 적에는 그 뒤에 오는 보조 용언은 띄어 쓴다.

19. 정답 ①

해설 본용언과 보조 용언을 구별하는 문제이다. ‘들고 가셨다’는 ‘들다’와 ‘가다’라는 실질적인 의미가 각각 살아 있으므로 본용언 두 개가 결합한 형태이다. 따라서 ‘가셨다’는 본용언이고, 나머지 ②·③·④는 본용언에 보조 용언이 결합한 형태이므로 밑줄 친 단어는 모두 보조 용언이다.

20. 정답 ④

해설 제시문의 진술 방식 중 잘못된 것을 찾는 문제이다. 글쓴이는 소형 주택·상가 건축 등이 필로티 방식을 선호한 이유에서 세월호가 평형 수를 줄이는 방식을 택한 이유를 유추해내고 있다. 즉 잘못된 정책에 맞추기 위해 저렴한 주택을 설계할 때 필로티를 선호할 수밖에 없었던 것처럼, 현실적으로 맞지 않는 저렴한 여객 운임에 대한 규정 때문에 세월호의 평형 수를 무리하게 줄이게 되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유추의 방식을 통해 문제 해결 방안을 제시한 것은 아니므로 ④가 적절하지 않다.